

코로나19·독감 ‘트윈데믹’ 막아라

질병관리청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제주 대상자 20만명...도, 면역저하자 등 5만여명 추가

오는 2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도민 5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15일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2만여 개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어르신과 임신부,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

다고 이날 밝혔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의 어린이, 임신부 등이다. 제주지역 대상자는 약 2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대상별 접종 개시 일자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의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2회 접종 대상자로 오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이외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어르신의 경우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만 70세부터 74세 이상은 10월 17일, 만 65세부터 69세 이상은 10월 20일 접종이 시작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의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로 생산한 4가 백신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제주도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이외에 만 60세부터 64세 도민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감염 위험 시설 종사자, 면역 저하자 등 5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10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로 방문하면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전 도민 대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올해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어 선제적으로 전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했다”며 “올해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제주도 자체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 도민 대상 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가을 익어가는 새별오름 15일 제주도 예월읍 새별오름을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억새꽃 사이를 걸으며 초가를 정취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표선땅 노린 도외인들 딱 걸렸다

검찰, 지가 상승 노린 가짜농부 5명에 벌금·징역형 구형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땅을 매입, 지가상승을 통해 부당 이익을 노린 다분지방 주민들이 무더기로 범법에 걸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1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여)씨 등 5명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에서 7월 사이 농사를 짓겠

다며 표선면 하천리 토지 1110㎡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을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는 해당 토지의 지가 상승을 노린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

토지 규모는 1인당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430㎡였으며, 이들 모두 대구에서 미용사나 회사원, 주부 등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다.

이날 검찰은 토지 규모가 작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규모가 큰 A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기획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했다. 위법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판사는 조만간 선고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여성 추행 몽골인 검찰 송치

산책하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 붙잡힌 몽골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몽골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6시20분쯤 제주시 탐동 인근에서 산책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날 회사 숙소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붙잡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6일 금요일 음 8월 21일 (13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60%
60%	성산	10%
60%	고산	20%
60%	서귀포	6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24/28°C	
모레	흐리고 비	25/28°C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5°C, 낮 최고기온은 29-31°C로 예상된다. 안개가 끼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운전 시 유의해야겠다.

☀ 해돋이 06:18	☁ 달뜨기 22:11
🌅 해질 18:40	🌙 달짐 12:01
🕒 물때	🕒 간조 08:27
🕒 만조 01:26	🕒 간조 21:17
🚑 식중독지수 위험	☀ 자외선지수 보통

미세먼지 (PM10)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14호 태풍 ‘난마돌’ 일본행 예상

제주 ‘강풍 반경’에 포함돼 18일 오후부터 영향

북상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규슈에 상륙할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0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태풍 난마돌은 오키나와를 거쳐 18일 오후 일본 규슈를 통해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난마돌은 일본 서부 해안선을 훑은

뒤 20일 센다이 북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그러나 제주에는 태풍 난마돌이 일본 규슈에 상륙하는 18일 오후부터 밤까지 영향을 받겠다. 최대풍속 초속 25m 이상 범위인 ‘폭풍반경’에는 들지 않겠지만, 초속 15m 이상의 ‘강풍반경’에는 제주 동부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초·중·고 참여율 38%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도내 전체 초·중·고의 37.6%인 71개교가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도구를 활용해 해당 학년 전체 전수 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 14일 기준 자율평가 신청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는 50개교(43.8%), 중학교는 17개교(37.8%), 고등학교는 4개교(13.3%)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참여율이 절반에 가까운 반면 기존 연 4회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받는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선희기자

편리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안전 수칙

삼발이보다 큰 과대불판 사용금지!

부탄캔을 화기 가까이 두지 말 것!

부탄연소기 이단 적재 및 병렬 배치 금지

텐트 내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 사용 금지

가스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부탄캔 파열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주택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